

[농산물 유통연구 시리즈 4]

농산물 수출확대: 유기JAS인증제도 활용

GSnJ 연구위원 김태균(경북대 교수)/tkkim@knu.ac.kr
조재환(부산대 교수)/jhcholee@pusan.ac.kr

1. 농산물 수출과 일본의 유기JAS제도 활용
2. 일본 유기JAS 인증제도의 발전
3. 한국의 유기JAS 인증 현황
4. 유기JAS 인증의 효과
5. 유기JAS 인증의 비용
6. 유기JAS 인증 및 수수료 지원의 타당성

<요 약>

농산물 수출확대: 유기JAS인증제도 활용

- 농산물 시장개방 폭이 급속도로 넓어지면서 수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새 정부는 농수산 식품 수출을 정책의 핵심 목표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 수출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농산물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 일본 수출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본정부가 인증하는 유기JAS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유기JAS 인증 농산물에 대한 일본 소비자의 선호도는 매우 높아 관행재배 상품에 비해 적어도 41%나 높고, 우리나라 농산물도 인증을 받으면 기존 한국 상품에 비해 두배 가까운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일본에서 유기JAS 인증 상품에 대한 수요가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농산물이 유기JAS 인증을 받지 못하면 일본에서의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어 유기JAS 획득은 대일 수출 확대는 물론 현 수준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유기JAS 인증을 획득하는 건수가 연간 47%나 증가하여 2005년에 이미 1,569건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인증 건수가 아직 7개 정도에 지나지 않아 유기JAS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 유기JAS 인증을 받으려면 새로운 재배법을 수용하는데 따른 비용과 위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신청수수료가 1,200~2,000만원 정도 필요하고 매년 200~300만원의 갱신비용도 필요하므로 생산자의 부담만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 유기JAS제도를 활용하여 대일 수출이 증가하면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산물가격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일본시장에서 한국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대일 농산물 수출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가 인증수수료 등을 지원하여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 수출확대: 유기JAS인증제도 활용

1. 농산물 수출과 일본의 유기JAS제도 활용

□ 과일·채소 수출의 50% 이상을 일본이 차지하고 있다.

- 시장개방 폭이 확대될수록 농산물 수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특히 새 정부는 수출확대를 농정의 핵심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 최근 과일 및 채소의 총수출액은 3억 4,130만 달러이고 이중 49%가 대 일본 수출이었다.
 - 특히 신선채소와 과일 수출액은 약 2억 달러인데 이중 59%는 일본이 차지하고 있다.

□ 유기 JAS제도가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 일본 소비자들의 농산물 선택기준이 안전과 안심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되어 일본 정부가 인증한 유기JAS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 따라서 유기JAS제도의 활용이 대일 수출증대를 통해 농산물 수출을 늘리는 중요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

2. 일본 유기JAS 인증제도의 발전

□ 유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유기JAS법이 도입되었다.

- 일본 정부는 유기농산물의 소비자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제적인 수준으로 표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JAS(Japan Agriculture Standard)법을 제

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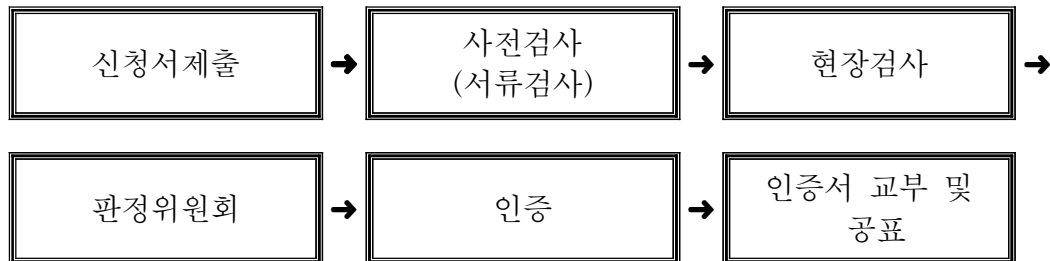
- 그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유기농산물에 대한 표시를 적정화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 － 1992년 10월: 「유기 농산물과 관련되는 청과물에 특별표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었다.
 - － 1996년 12월: 「유기 농산물 및 특별재배 농산물과 관련되는 표시 가이드라인」으로 개정하였다.
 - － 1999년 7월~2001년 4월: 「유기 농산물의 생산·가공·표시·판매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2000.1) 한 후 2000년 6월에 개정된 JAS법을 시행하고 2001년 4월부터는 법적으로 규제를 실시하였다.
 - － 2006년 3월: 인증업무를 관장하는 등록인증기관의 자격을 ‘제품인증기관에 대한 일반요구사항(ISO/IEC GUIDE 6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법인격 이상의 기관으로 변경하였다.
- 유기JAS 인증의 주요 목적은 유기 농산물의 생산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유기JAS 규격 제 1조)이다.

□ 유기JAS 인증을 받으려면 현장조사와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 유기JAS인증을 받으려면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전검사(서류검사)와 현장검사를 받아야 한다.
 - － 사전검사(서류검사)는 신청서와 부속서류에 대해 해당 업종별로 농림수산성이 정하는 「인증의 기술적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 서류검사 후에 인증기관의 인증검사원이 포장 또는 시설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 사전검사 및 현장검사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판정위원회가 개최되어 그 결과

가 인증에 적합할 경우에는 인증서가 발행된다.

<그림 1> 유기JAS 인증 취득까지의 흐름도



○ 인증을 받은 업자들은 지정된 장부의 기록과 JAS 마크 부착기록을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인증기관의 인증검사원의 요구에 따라 이들을 제시해야 한다.

○ 인증을 받은 업자들이 인증, 인증표시 업무를 적절히 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 이후 최대 1년에 1회 또는 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사를 실시한다.

* 한국의 경우는 매년 인증을 갱신한다.

○ JAS법 및 관련 법규(일본 농림규격 등)에 위반이 있는 경우 또는 중대한 부적합이 인정된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 유기JAS 인증 건수는 해외인증이 연평균 47%씩 증가하고 있다.

○ 일본의 유기JAS 인증은 2001년 법적 규제를 실시한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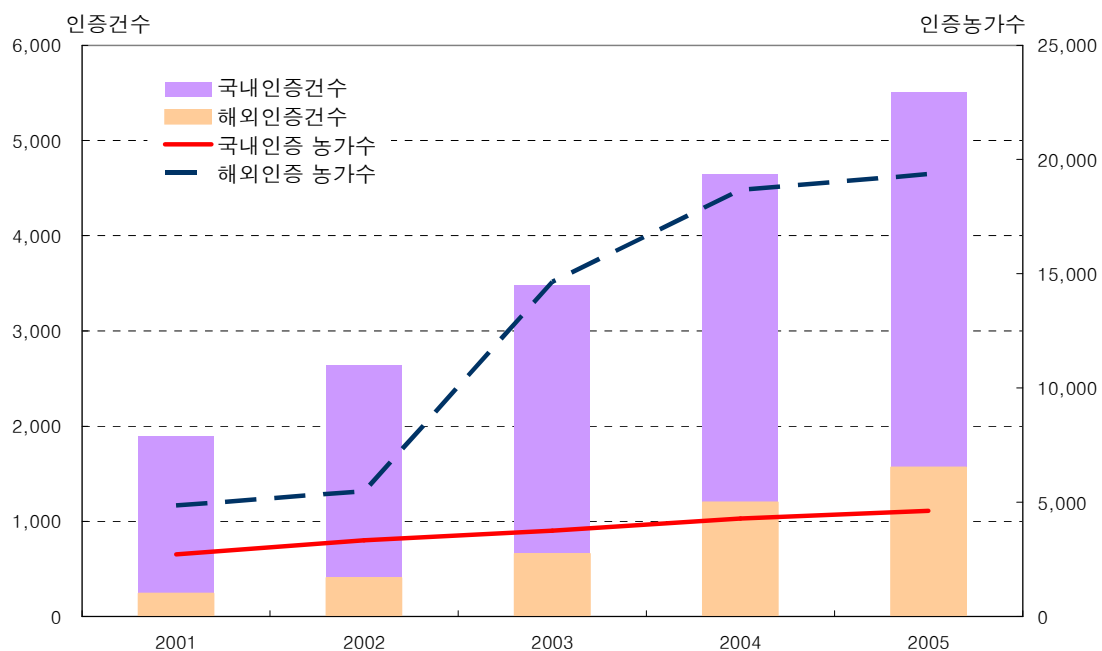
— 인증 건수가 2001년에 1,895건이었으나, 2005년에는 5,504건으로 연평균 26.7%씩 증가하였다.

— 인증 농가 수는 2001년에 7,580호였으나, 2005년에는 24,002호로 연평균 28.8%씩 증가하였다.

○ 일본 국내 생산자가 인증을 받는 국내인증에 비해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JAS 인증을 받는 해외인증이 더욱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 국내인증 건수는 2001년 1,653건에서 2005년에 3,935건으로 연평균 21.7%씩 증가한 반면 해외인증 건수는 242건(2001년)에서 1,569건(2005년)으로 연평균 46.7%씩 크게 증가하였다.
- 국내인증 농가 수도 연평균 13.3%씩 증가한 반면 해외인증 농가 수는 연평균 34.6%씩 증가하였다.

<그림 2> 유기JAS 인증 현황



3. 한국의 유기JAS 인증 현황

□ 유기JAS 인증을 받고 수출하는 경우는 아직 별로 없다.

○ 일본에 수출된 한국산 농산물 중 유기JAS인증을 받은 농산품은 한우물(주)의 미나리즙과 강림자연농원(주)의 김치에 불과하다.

- 2001년에 유기JAS인증을 받았던 강림자연농원(주)의 경우 유기 김치를 2001년에 일본에 수출한 바 있으나 채산성의 악화로 2002년 이후 수출 중단 상태

에 있다.

- 한우물(주)의 경우 2005년에 유기JAS인증을 받은 바 있으나 인증을 갱신하지 않은 관계로 2006년에 인증이 취소되었다가 그 이후 다시 인증을 받아서 일본에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 여러 업체가 유기JAS 인증을 획득하여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

-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몇 개의 업체(작목반)가 유기JAS인증을 받아 일본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

- (주)이룸F&D(유기 케일), HC바이오텍(주)(유기 함초), (주)동의나라(유기 뽕잎), (영)청매원(유기 매실) 등이 건강식품 위주로 유기JAS인증을 받아 일본에 수출을 준비 중에 있다.
- 메뚜기 쌀 작목반이 2007년에 쌀로 유기JAS인증을 받았지만 일본 수출에 대한 계획은 아직 불투명하다.

<표 1> 한국의 유기JAS인증 현황

지역 및 상호	품목	수수료 지원	비 고
경남 산청군 메뚜기쌀 작목반	유기 쌀	군비(100%)	JAS인증완료(2007년)
전남 무안군 (주)이룸F&D	유기 케일	도비(30%), 군비(30%), 자부담(40%)	JAS인증완료(2006년)
전남 장흥군 HC바이오텍(주)	유기 함초	도비(30%), 군비(30%), 자부담(40%)	JAS인증완료(2007년)
전남 나주시 (주)동의나라	유기 뽕잎	도비(30%), 군비(30%), 자부담(40%)	JAS인증완료(2007년)
전남 장흥군 (영)청매원	유기 매실	도비(30%), 군비(30%), 자부담(40%)	JAS인증완료(2007년)
전남 화순군 (주)한우물	유기 미나리즙	도비(30%), 군비(30%), 자부담(40%) 재신청시: 자부담(100%)	2005년 JAS인증완료 2006년 인증취소 2007년 이후 인증신청예정
경남 밀양시 (주)강림자연농원	유기 김치	자부담(100%)	JAS인증완료(2001년) 2002년 이후 수출 중단

□ 유기JAS 인증을 준비하는 곳도 여러 곳 있다.

- 현재 몇 개의 업체(작목반)가 유기JAS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 － 경남 진주 대평 영농조합연합(딸기), 경남 김해 대동 토마토작목(방울토마토), 경기 광주시 삼성유기농(신선초) 등이 유기JAS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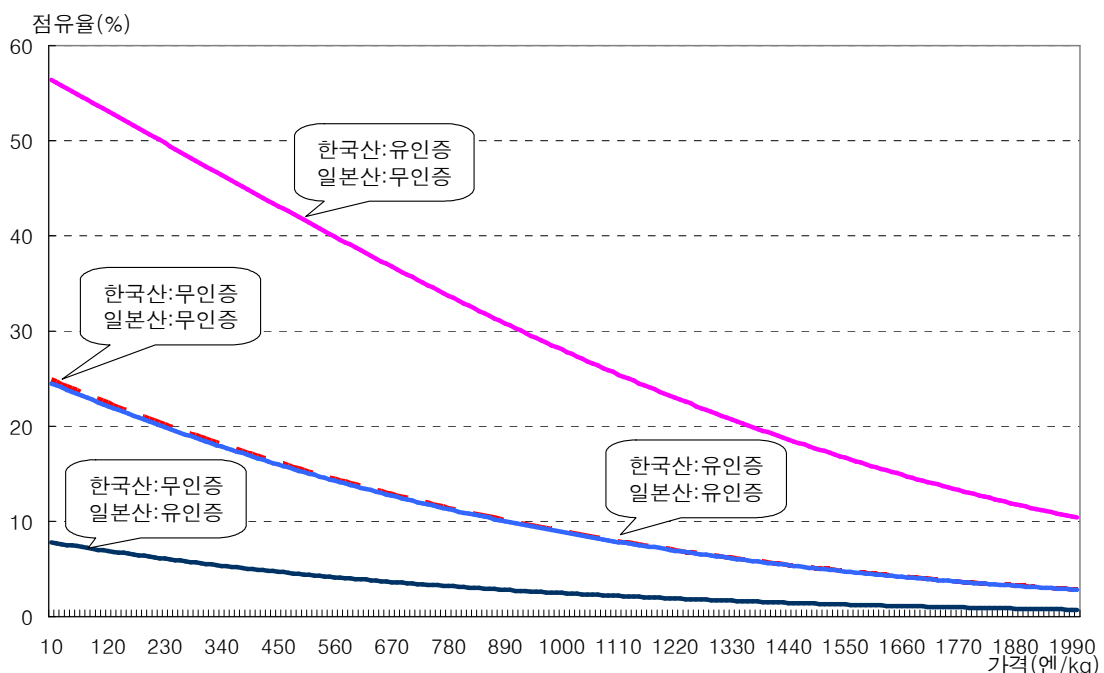
4. 유기JAS 인증의 효과

□ 유기JAS인증은 일본시장에서 한국산의 점유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일본시장에서 농산물의 경우 원산지별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므로 유기JAS인증은 원산지별 시장점유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일본 동경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분석 결과에 의하면 방울토마토의 경우 유기JAS인증이 원산지별 시장점유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김태균·조재환, “일본 소비자의 JAS인증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별 선호분석”, 2008년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농업정책학회, 2008. 2).
 - － 한국산 방울토마토는 유기JAS인증을 받고 일본산은 JAS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한국산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예를 들어 한국산 방울토마토의 가격이 700엔/kg 일 때 둘 다 JAS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의 점유율이 12.5% 정도이나, 한국산만 유기JAS인증을 받을 경우 점유율이 35.9%까지 증가한다.
- * 미국산의 JAS인증은 ‘없음’으로, 일본산, 한국산, 미국산의 대소등급은 모두 ‘M’, 일본산과 미국산의 가격(엔/kg)은 각각 1000엔과 700엔을 적용해서 산출하였다.
 - － 일본산도 유기JAS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두 원산지 모두 유기JAS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와 점유율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

- 일본산은 유기JAS 인증을 받고, 한국산은 유기JAS인증 받지 않은 경우는 한국산의 점유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다. 예를 들어 한국산 방울토마토의 가격이 700엔/kg 일 때 한국산의 점유율은 3.5%까지 감소한다.
- 이와 같은 결과는 대일 농산물 수출의 활성화를 위해, 아니면 최소한 현재 상태의 수출(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기JAS인증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유기JAS 인증 시나리오별 한국산의 일본시장 점유율



자료: 김태균·조재환, “일본 소비자의 JAS인증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별 선호분석”, 2008년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농업정책학회, 2008. 2

□ 일본 소비자의 유기JAS 농산물에 대한 지불의사가 높아 수출가격이 높아진다.

○ 일본소비자 조사결과에 의하면 방울토마토의 경우 유기JAS인증에 대한 지불의사는 매우 큰 것으로 추정된다(조재환 외, “일본의 유기JAS인증 농산식품 시장분석과 수출정보 지원”, 농촌진흥청, 2008. 2).

- 한국산 방울토마토의 유기JAS 인증에 대한 지불의사는 약 6,500원/kg(77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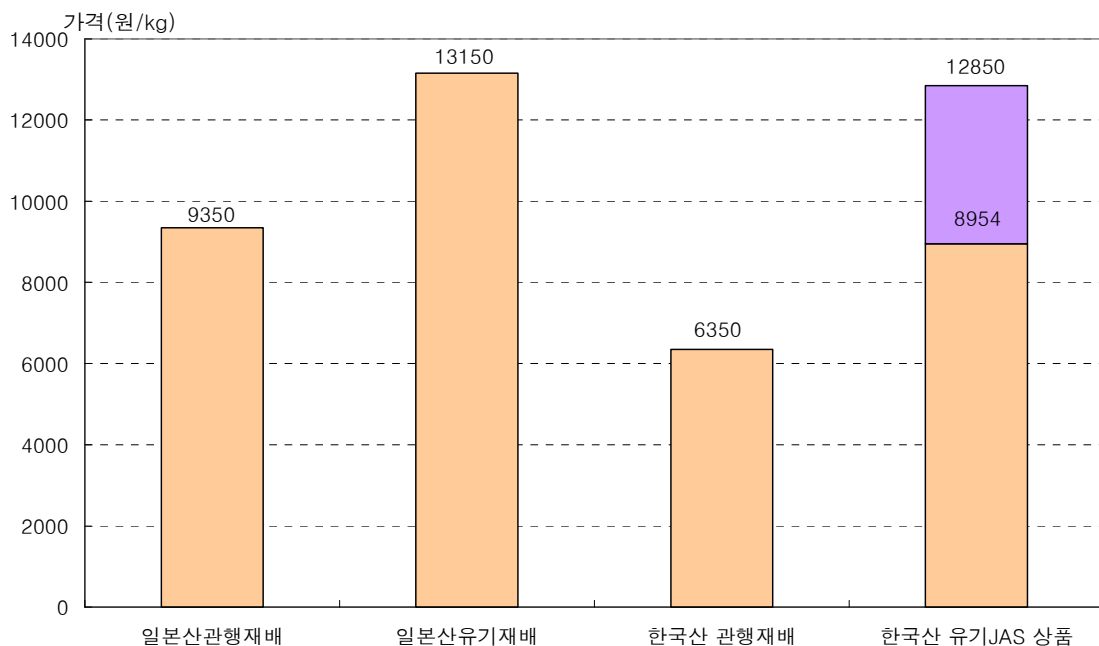
엔/kg)으로 추정된다.

* 이하 2006.7~2007.6 사이의 평균 환율인 100엔당 850원 적용

- 일본에서 시판되고 있는 한국산 관행재배 방울토마토의 소비자가격의 평균이 6,350원/kg(747엔/kg)이므로 유기JAS 인증품의 가격은 12,850원/kg이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그러나 가설적 상황의 조사 자료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가설적 편향(hypothetical bias)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 한편, 일본산 관행재배 방울토마토와 유기재배 방울토마토의 가격차이를 적용하면 한국산 유기JAS인증 방울토마토 가격은 8,954원/kg이 된다.

<그림 4> 방울토마토의 평균 소비자가격



주 1) 2006. 7~2007. 6월 사이의 평균가격

2) 한국산 유기JAS가격은 추정가격으로, 8,954원은 관행재배 가격 6,350원에 일본산 관행재배 가격 대비 유기JAS가격 비율을 적용하여 추산한 것이며, 12,850원은 소비자 지불의사가격에 의해 추정한 것임.

- 일본산 방울토마토의 평균 소비자가격이 유기재배의 경우 13,150원/kg 인 반면, 관행재배의 경우 9,350원/kg으로 3,800원/kg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한국산에 대해서도 동일한 차이를 나타낸다면 한국산 유기재배 방울토마토의 평균 소비자가격은 8,954원/kg~10,150원/kg 정도로 계산된다.
- 따라서 한국산 유기JAS 방울토마토의 소비자 가격은 8,954원/kg~12,850원/kg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검역상의 이점 등 부가적 효과도 크다.

- 사전에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검역·통관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일본 소비시장에서 한국산 농산물이 저급품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어 농산물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 거시적으로 보면 수출이 늘어나는 만큼 국내 가격이 상승하지만 소득기회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5. 유기JAS 인증의 비용

□ 유기재배를 위한 비용

- 유기JAS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유기재배에 따른 생산량 감소의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 또한 농가들은 JAS법이 정한 유기재배 환경조성, 영농일지 작성, 친환경 자재 사용 준수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유기재배에 대한 비용은 농가의 현재 생산기술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날 것이다.
 - 이미 유기JAS인증에 적합한 생산기술을 도입한 농가들과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들은 부가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 반면에 현재 관행재배 농가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부가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인증 수수료 및 로열티도 지불해야 한다.

- 업체(농가)들은 유기JAS인증 신청을 위해 1,200~2,000만원의 수수료(컨설팅 용역비 포함)를 부담해야 한다.
- 또한 인증을 받은 업체(농가)는 감사 및 인증 갱신을 위하여 연간 약 200~3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그 외에 인증을 받은 업체(농가)는 유기JAS 농산물 판매 실적에 따라 로열티를 추가로 부담한다.
- 예를 들어 방울토마토는 1박스(3kg)당 10~20원, 녹차는 1봉지(100g)당 10~20원을 부담해야 한다.

6. 유기JAS 인증 및 수수료 지원의 타당성

□ 유기JAS 인증 획득의 이득이 비용보다 커야한다.

- 유기JAS인증 획득하려면 유기JAS 인증에 의한 효과가 유기JAS 인증을 위한 비용보다 더 커야 한다.
- 유기JAS 인증을 받으면 방울토마토의 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출가격이 현저히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수출증가, 검역상의 애로해결 등의 효과가 있다.
- 유기JAS 인증의 비용은 유기재배를 위한 비용, 인증 수수료 및 로열티 등으로 요약된다.

□ 유기JAS 인증 획득이 타당성 있는 품목이 많다.

- 일본의 가공업체, 금식업체,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무말랭이, 김치, 건조 표고버섯 등은 유기농산품의 대일본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조재환 외, “일본의 유기JAS인증 농산식품 시장분석과 수출정보 지원”, 농촌진흥청, 2008. 2).

- 이들 중 방울토마토는 앞의 경제성 분석에 의해 유기JAS인증 취득의 타당성이 있는 품목으로 평가된다.
- 파프리카, 무말랭이, 김치, 건조 표고버섯 등은 일본시장에서의 소비자 지불조사비교 등을 조사하여 유기JAS인증의 충분조건이 만족될 수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

○ 반면, 녹차의 경우는 유기JAS인증 획득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유기녹차의 경우는 우리나라 국내가격이 매우 높아 수출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본의 소수 기호계층을 제외하고는 수요가 불투명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 지자체 등이 수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이미 현재 유기JAS인증 신청 수수료(1,200~2,000만원)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다.

- 전남의 경우 도비 30%, 군비 30%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남의 일부 시군(산청군)은 100%를 지원하고 있다.

○ 유기JAS인증을 받아 수출이 증대(또는 유지)되면 지역농업의 활성화, 친환경 농업 육성,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가격 지지, 일본시장에서 한국산이 저급품이라는 이미지 탈피 등 사회적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등이 유기JAS 인증 획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